

몽클레르 패딩 입은 벤츠...돌아온 슈퍼 스포츠카

몽클레르 협업 '프로젝트 몬도 G'·로드스터 'AMG SL' 등 벤츠코리아, 최상위 럭셔리·전동화 모델 11종 국내 공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최근 열린 '2023 서울 모빌리티쇼'에서 벤츠의 럭셔리와 전동화(Luxury & Electrification) 전략을 구현한 최상위 럭셔리 모델과 전기차 등을 대거 공개했다. 벤츠는 아시아 최초 공개 모델 1종, 국내 최초 공개 모델 5종을 포함해 총 11종의 차량을 선보였다.

◇아시아 최초 공개 '프로젝트 몬도 G'=벤츠는 이번 서울모빌리티쇼에서 브랜드 몽클레르와 협업한 아시아 최초 공개 모델 '프로젝트 몬도 G'(Project MONDO G)를 공개했다.

지난 2월 런던 패션위크, 몽클레르 쇼에서 최초 공개 이후 아시아에서 첫 번째 공개되는 프로젝트 몬도 G는 메르세데스-벤츠 G-클래스와 몽클레르만의 디자인 코드를 결합한 협업 쇼카(전기용차)다.

프로젝트 몬도 G는 몽클레르가 처음으로 자동차 기업과 진행한 협업으로, 벤츠의 오프로드 차량 G-클래스의 특징에 몽클레르 고유의 패딩 재킷 스타일을 결합했다. 이를 통해 G-클래스의 각진 디자인과 몽클레르 특유의 킬링 직물의 부드러움 흐르는 라인이 이루는 극적인 대조가 특징이다. 또한 거칠게 녹아 스듯한 표면처리는 오랜 세월의 맛을 구현해 G-클래스의 기능성과 실용성을 강조했다.

이밖에 벤츠는 메르세데스-마이바흐와 패션 아이콘 고(故) 버질 아블로가 협업한 한정판 에디션 모델 '더 뉴 메르세데스-마이바흐 S 680 4매틱(MATIC)' 버질 아블로 에디션'도 국내 최초로 선보였다.

이번 에디션은 아티스트이자 건축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패션 디자이너인 버질 아블로가 벤츠 그룹 AG 최고 디자인 책임자 고든 바그너와 협력해 설계한 한정판 모델이다.

2021년 11월 버질 아블로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기 직전 완성돼 150대 한정 수량으로 전 세계 출시됐다.

◇슈퍼 스포츠카의 귀환...더 뉴 메르세데스-

AMG SL' 국내 최초 공개=이달 출시하는 럭셔리 로드스터 '더 뉴 메르세데스-AMG SL 63 4매틱+'도 공개됐다.

더 뉴 SL은 럭셔리 로드스터 SL의 7세대 완전 변경 모델로, SL이 가진 70년간의 헤리티지가 현대적으로 재해석돼 새롭게 재탄생한 모델이다. 특히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전형적인 SL의 패밀리 룩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현재 벤츠의 감각적 순수미와 AMG 고유의 스포티함이 조화를 이루어 특별한 감성을 담았다.

럭셔리 고성능 브랜드 메르세데스-AMG가 독자 개발한 첫 SL모델인 7세대 더 뉴 SL은 AMG의 강력한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갖추면서도 일상 주행에서도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실용성을 놓치지 않은 모델로, 오는 4월 출시되어 럭셔리 로드스터의 기준을 재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동화 전략 이끌 신차 국내 최초 공개=벤츠는 새로운 전동화 전략 모델인 럭셔리 비즈니스 전기 SUV '더 뉴 EQE SUV'와 고성능 럭셔리 비즈니스 전기 세단 '더 뉴 메르세데스-AMG EQE'도 국내 최초로 공개했다.

더 뉴 EQE SUV는 럭셔리한 실내의 디자인, 메르세데스-벤츠의 첨단 기술, SUV의 다재다능함만 남긴 '완벽한 올라운드' 모델이다. 공기역학계수 0.25 Cd를 자랑하는 진보적인 럭셔리 디자인, 동급 최상의 수준의 넉넉한 실내 공간 및 EQE세단의 다양한 편의사양으로 편안함까지 모두 갖춘 것이 특징이다.

전기 주행 퍼포먼스의 미래를 보여주는 더 뉴 메르세데스-AMG EQE는 고성능 럭셔리 브랜드 메르세데스-AMG가 메르세데스-AMG EQS에 이어 두 번째 선보이는 고성능 전기 세단이다. 벤츠가 선보이는 전기차 중 가장 빠른 가속도 등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 벤츠코리아는 오는 4월 '더 뉴 메르세데스-AMG EQE 53 4매틱+'를 출시할 예정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위부터 '프로젝트 몬도 G', '마이바흐 S 680 4매틱 버질 아블로 에디션', '더 뉴 EQE 500 4매틱 SUV', 'AMG EQE 53 4매틱+'.

25분만에 80% 충전 강풍에도 끄떡없는

기아가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두 번째 전용 전기차 'EV9'가 모습을 드러냈다.

기아는 최근 개막한 '2023 서울모빌리티쇼'에서 '더 기아 EV9' 실차를 세계 최초로 공개했다.

대형 SUV인 EV9은 대용량 배터리와 전력 효율화 사양 적용에 따른 긴 주행거리, 전기차에 최적화된 차체 설계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OTA) 등으로 이동에 대한 개념과 방식을 완전히 바꿀 차량이라고 기아는 설명했다.

350kW급 충전기로 25분 만에 배터리 용량 10%에서 80%까지 충전 가능한 400V-800V 멀티 초급속 충전 시스템, 충전소 도착 시점에 배터리 온도를 제어해 충전 속도를 최적화하는 배터리 컨디셔닝, 냉난방 독립 제어로 소모전력을 줄이는 후석 독립 공조시스템 등 전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기능도 탑재됐다.

2WD(후륜구동) 모델은 최고 출력 150kW에 최대 토크 350Nm, 4WD(4륜구동) 모델은 최고 출력 283kW에 최대 토크 600Nm의 힘을 발휘한다. 4WD 모델은 '부스트' 옵션을 추가하면 최대 토크를 700Nm까지 높여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5.3초 만에 도달한다.

소프트웨어로 차체를 제어해 안전성을 높이는 기능도 여럿 적용됐다.

다이나믹 토크 배터링(eDTV)은 차량이 선회할 때 각 바퀴에 적절한 토크를 분배해 안정적 선회를 돕는다. 고속주행 중 측면에서 강풍이 불어오면 조향 토크 등을 제어해 차량이 밀리지 않도록 돕는 횡풍 안정 제어, 눈·진흙·모래 등 노면 상태를 반영

기아 'EV9' 물건이네



2023 서울모빌리티쇼 기아관에 전시 중인 EV9.

하는 오토타레인 모드 등이 제공된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선언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전환 목표를 구현하는 면모도 갖췄다.

GT-라인 모델부터는 레벨3 수준의 고속도로 자율주행(HDP-Highway Driving Pilot) 기능이 탑재된다. 현재 상용화된 레벨2 자율주행은 운전자가 기능 사용 중에도 운전대에 손을 올려놓는 등 개입해야 하지만 레벨3에서는 손을 떼 상태로도 경고음 없이 차량 스스로 최고 시속 80km로 주행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HDP는 제한속도가 변화하는 구간 또는 곡선로에서 상황에 맞게 스스로 속도를 조절한다. 전방 차량과 끼어들기 차량 등을 판단해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주행 안정성도 확보한다.

EV9의 제원은 기아 자체 측정 기준으로 전장 5010mm, 전폭 1980mm, 전고 1755mm, 휠베이스(축간거리) 3100mm다. GT-라인은 전장이 5015mm, 전고는 1780mm으로 조금 더 크다.

트래버스 구매 고객이 콤보 프로그램을 선택할 시 최대 4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며, 일시불로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취득세 300만원을 지원한다. 트래버스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는 3.9%의 이율로 최대 60개월 특별 할부 프로그램(선수율 30%)을 제공하는 한편, 만 20세 이하의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구를 대상으로 다자녀 양육비 100만원을 지원한다.

타호 구매 고객에게는 3.9%의 이율로 최대 60개월 특별 할부 프로그램(선수율 30%)을 제공하며, 일시불 구매 고객에게는 취득세 50%를 지원한다. 사업자 고객에게는 150만원을 지원, 보증 연장 유료 서비스인 웨보레 플러스 케어 2년·4만km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

웨보레 부담없이 만나요...4월 특별 프로모션

콜로라도 36개월 저리 할부...트레일블레이저 200만원 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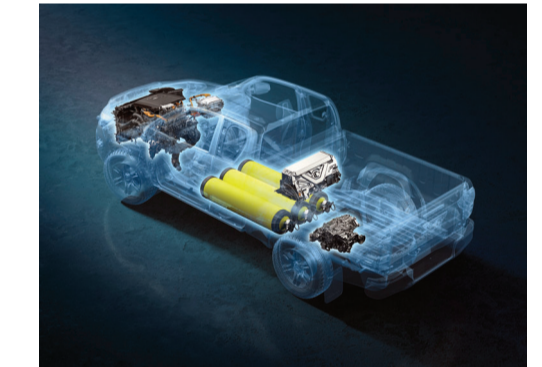
웨보레는 봄을 맞아 이달 한 달 동안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우선 웨보레는 콜로라도 구매 고객에게 1.9%의 낮은 이율로 최대 36개월 특별 할부 프로그램(선수율 0%)을 제공하며, 일시불로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취득세 25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150만원을 지원하며, 콜로라도 Z71 모델을 선택한 고객에게는 스페셜

모델인 시그니처-X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60만원 상당의 3중 액세서리 장착을 무상 지원한다.

또 트레일블레이저를 구매하는 고객이 콤보 프로그램을 선택할 시 2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며, 일시불 구매 시 취득세 50%를 지원한다. 이밖에 '새로운 시작' 프로그램을 통해 신입생, 신규 입사자, 신혼부부 등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트레일블레이저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50만원을 제공한다.



토요타 '하이릭스 수소 연료 전지 프로토타입' 서울모빌리티쇼 상용차 '최고의 컨셉트카'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최근 2023 서울모빌리티쇼에서 열린 '2023 퓨처 모빌리티' 시상식에서 토요타의 '하이릭스 수소 연료 전지 프로토타입' <사진>이 상용차 부문 최고의 컨셉트카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퓨처 모빌리티상'은 지난 2019년부터 KAIST 조천식모빌리티대학원이 주최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국제 컨셉트카 시상식으로, 전년도에 선보인 컨셉트카 가운데 미래사회에 유용한 교통 기술과 혁신적 서비스를 선보인 최고의 모델을 승용차 상용 2개 부문으로 나눠 선정한다.

토요타는 지난 '2019 퓨처 모빌리티' 상용차 및 1인 교통수단 부문에서 토요타의 'e-팔레트(e-Palette)'와 '컨셉-아이워크(Concept-I WALK)'가 최고의 컨셉트카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에 수상한 토요타 '하이릭스 수소 연료 전지 프로토타입'은 지난해 12월 공개한 컨셉트카로, 토요타의 대표 픽업트럭인 하이릭스에 최신 미라이 수소차가 장착하고 있는 2세대 수소연료 전지 시스템을 탑재한 모델이다.

토요타자동차는 다양한 전동화 모델의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멀티 패스웨이(Multi Pathway)' 전략에 따라 하이브리드(Hybrid Electric V

ehicl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전기차(Battery Electric Vehicle)를 비롯해 수소연료전지차(Fuel Cell Electric Vehicle)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특히 코롤라에 수소연료전지를 탑재해 모터스포츠 대회에 참가, 내구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다양한 도전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 콘야마 마나부 사장은 "하이릭스 수소 연료 전지 프로토타입이 올해의 상용차 부문 최고 컨셉트카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토요타자동차는 다양한 전동화 모델 선택지를 제공하는 '멀티 패스웨이' 전략으로 새롭고 매력적인 미래 이동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지난 2월 '모두를 위한 전동화' 전략 아래 '2023 기자간담회 & RAV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런칭' 행사를 개최하며 '멀티 패스웨이' 글로벌 전략에 발맞춰 다양한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총 8종의 전동화 라인업을 순차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

KG모빌리티, 토레스 EVX 사전계약

KG모빌리티(구 쌍용자동차)는 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토레스 EVX의 사전계약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토레스 EVX는 1회 충전 시 유럽 인증 기준 500km, 국내 기준 42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 주행 가능 거리는 자체 측정 결과로 공식 인증에

서 변경될 수 있다. KG모빌리티는 사전계약 고객 중 300명을 추첨해 2회 이용이 가능한 픽업&딜리버리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고객 체험 행사에 사전계약 고객을 우선 초청할 계획이다. /연합뉴스